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_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40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5.08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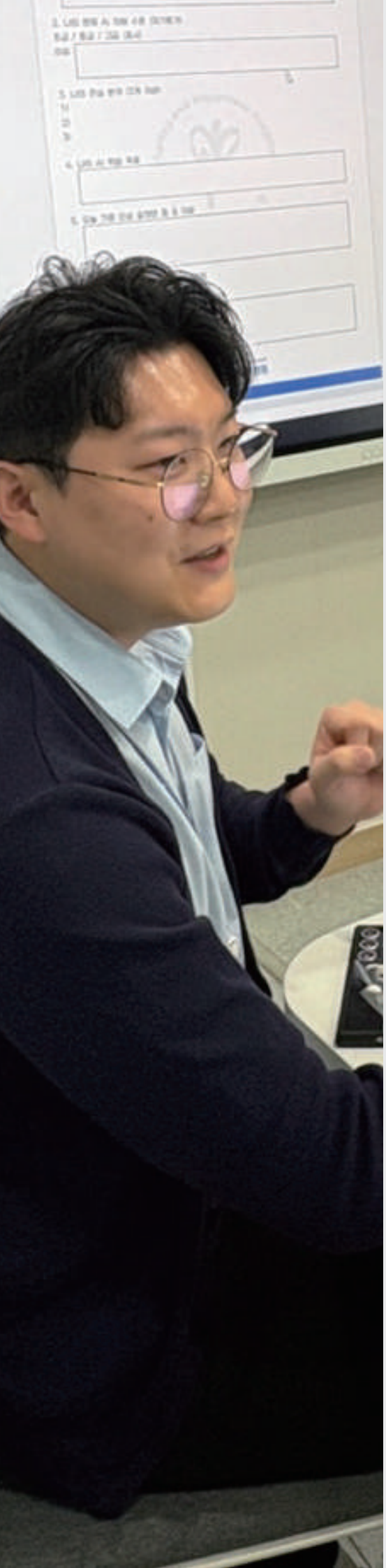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I 역량강화 및 내부코치 양성교육 (08.07부터)



■ 일시 : 8. 7~9.25 (매주 화 or 목) / 오후 4시 반 - 5시 반
■ 장소 : 6층 or 1층 회의실
■ 강사 : 김대용 (원무팀 파트장)

"AI, 많이 들어는 봤는데, 아직은 낯설어요"
"AI는 당연히 쓰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멀게만 느껴지던 AI가 어느새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나행에서도 이미 업무에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단순히 도구 몇 가지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AI의 기초개념과, 윤리적 문제,
실제 활용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교육은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동안 AI를 꾸준히
공부해온 원무팀의 김대용파트장님이 내부강사로 교육을 진행해주시는데요.
커리큘럼을 짜는 것부터, 매주 강의안을 만드는 것까지 본인이 학습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알찬 강의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AI도구들의 놀랄만한 기능들을 보는 재미는 덤이죠^^

이번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은 본인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 팀별로 AI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하고 알려주는 AI 내부코치로도
활동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벌써부터 2기 교육은
언제 모집하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AI를 누구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요^^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신입직원 교육이 있던 어느 날, 9층 소망정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025년 신입직원 3개월 프로그램 실시

신입직원교육은 신입직원이 해나행의 조직문화와 비전을 이해하고,
필요한 업무 역량을 갖추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첫 걸음입니다.
신입직원교육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총 세 번의 만남으로 진행됩니다.

- 신입직원온보딩 1차(1개월차) - 신입직원교육
- 신입직원온보딩 2차(2개월차) - 입사동기 공감만남
- 신입직원온보딩 3차(3개월차) - 수습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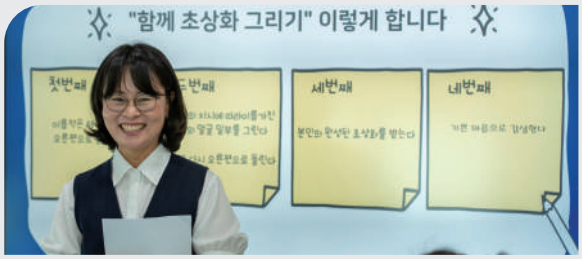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신입직원교육 “함께 가치있는 한걸음”

6기 신입직원 온보딩 1차 (08.09)











▷참 석 자:
간호팀 - 이채원
재활치료2팀 - 박연주
브랜딩실 - 박주영
시설팀 - 김승욱
재무팀 - 이현승, 박아람

하루 24시간, 그중에 깨어있는 16시간입니다. 출퇴근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더해본다면 깨어있는 시간의 2/3를 일을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가장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2/3를 쏟아 붓는데, 이 시간을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견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신입직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함께 일하기로 선택한 모든 분들이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 일의 의미를 찾고 보다 더 깊은 즐거움을 느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하루 종일 무슨 교육을 하는 거지 하던 분들도 교육을 마칠 때가 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질문을 받았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고민을 하는 과정이 의미 있다’고 한결같이 말씀해주는 것도 이런 진심이 담겼기 때문이겠지요.

‘서로의 초상화그리기’부터, ‘나의 비전세우기’까지 이번 신입직원교육도 참가하신 분들, 준비한 분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입사동기 공감만남 “서로를 응원합니다”

5기 신입직원 온보딩 2차 (08.19)

▷참 석 자:
간호팀 - 이태영, 김희수, 박지연, 이희주
갑상선유방팀 - 김시향, 마정연

2025년 5기 신입직원들의 두 번째 만남은 점심시간에 시원한 민트티와 달달한 간식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백선미병원장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사람을 봅니다’라는 미션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의료에서 참여자들을 대하는 원칙이기도 하지만 직원들의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데도 ‘사람을 봅니다’라는 미션이 중심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해나행이 좋은 기업으로서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데에도 우리의 미션이 등대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신입직원들이 병원장님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입사동기들과 2달여간의 어려움을 나누고 응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습수료식 “함께 뿌리내림”

4기 신입직원 온보딩 3차 (08.22)

▷참 석 자:
재활1팀 - 박민우
재활2팀 - 박현준
브랜딩실 뉴미디어팀 - 서수원
내과내시경팀 - 최민서, 황혜령
간호팀 - 이경은, 허미석, 이효정, 황연아, 김슬기

2025년 4기 신입직원들이 무사히 수습기간을 마치고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각자의 3개월을 돌아보는 성장PT발표가 진행되었는데요. 바쁜 업무 중에 여러 장의 PT를 작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의 나를 생각해보고, 지난 3개월간 성장한 나를 돌아보고, 도움을 준 사람들과 앞으로의 다짐까지 작성하면서 느끼는 특별한 감회가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다른 입사동기들의 성장PT를 서로 들으면서 새롭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테구요.

바쁜 일상 업무 속에서 수습기간의 매듭을 짓고, 해나행에서 단단히 뿌리내리겠다는 다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8.08)

6층 낮병동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매달 '출석왕'과 '자립왕'을 선정하여, 참여자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자립을 향한 멋진 발걸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7월의 출석왕에는 김○한, 박○희식 님이, 자립왕에는 류○태, 김○창 님이 수상하셨고 시상식은 환호와 웃음 속에서 즐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을 통해 참여자분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분들의 소감과 6층 일상재활센터 안 게시판에 전시된 사진도 함께 보내드리니, 잠시 확인하시면서 따뜻한 박수와 응원의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27, 28대 꿀꺽왕 시상식

(07.31 / 0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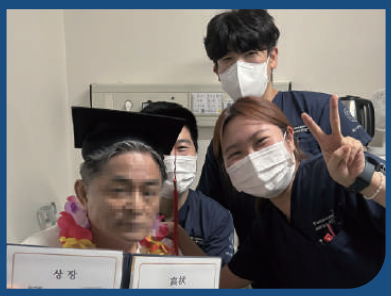
이번 제 27대 꿀꺽왕은 8생활동에 입원하고 계신 김○옥 참여자분이, 28대 꿀꺽왕은 8생활동의 나가○○ 류 참여자분이 선정되었습니다.





27대 꿀꺽왕 시상식에는 특별히 김○옥님 담당이신 김완호 원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김○옥님은 축하해주러 와주신 선생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전하시며,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당장에 생각나지 않지만 모든 음식을 잘 먹을 자신이 있다하셨습니다.





28대 꿀꺽왕 시상식에서는 일본 국적의 나가○○님을 위해 일본어로 번역된 특별 상장을 준비해 전달해 드렸는데요, 참여자분과 보호자님 모두 매우 기뻐하시며, 시상식에 함께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좋아하는 장어덮밥보다 아내가 만든 파스타를 먼저 먹고 싶다고 말씀하신 나가○○님! 그 따뜻하고 스윗한 마음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건강한 회복과 멋진 일상 복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밖으로한걸음씩 (08.05 / 08.12)





퇴원이후 학교를 복학을 할 때 필요한 것과 학교위치에 대해 알아보고 운전면허조건변경을 위해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을 다녀왔습니다.

복학을 하게 되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먼저 방문해 도우미제도와 수강신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학교건물마다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그리고 강의실형태가 제각각이라 동선과 수업 스케줄 조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경사가 가팔라서 이동할 때 차나 전동휠체어로 이동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학교답사를 마치고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서 조건변경을 할 때 운동능력평가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과하였습니다. 내년에 복학하신다고 하니, 충분히 준비하셔서 멋진 학교생활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OO님은 다치고 나서 운전면허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 마음을 품고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했습니다.

면허 갱신과 함께 조건 변경을 위해 나선 길, 보호자분의 따뜻한 동행 아래 신체검사와 운동능력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침착하게 해내셨습니다. 발급된 면허증을 보시고 활짝 웃으시는 이OO님의 모습은 그 어떤 결과보다 값진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간절함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함께한 저희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 운전대를 잡고 마음껏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저희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2025년 8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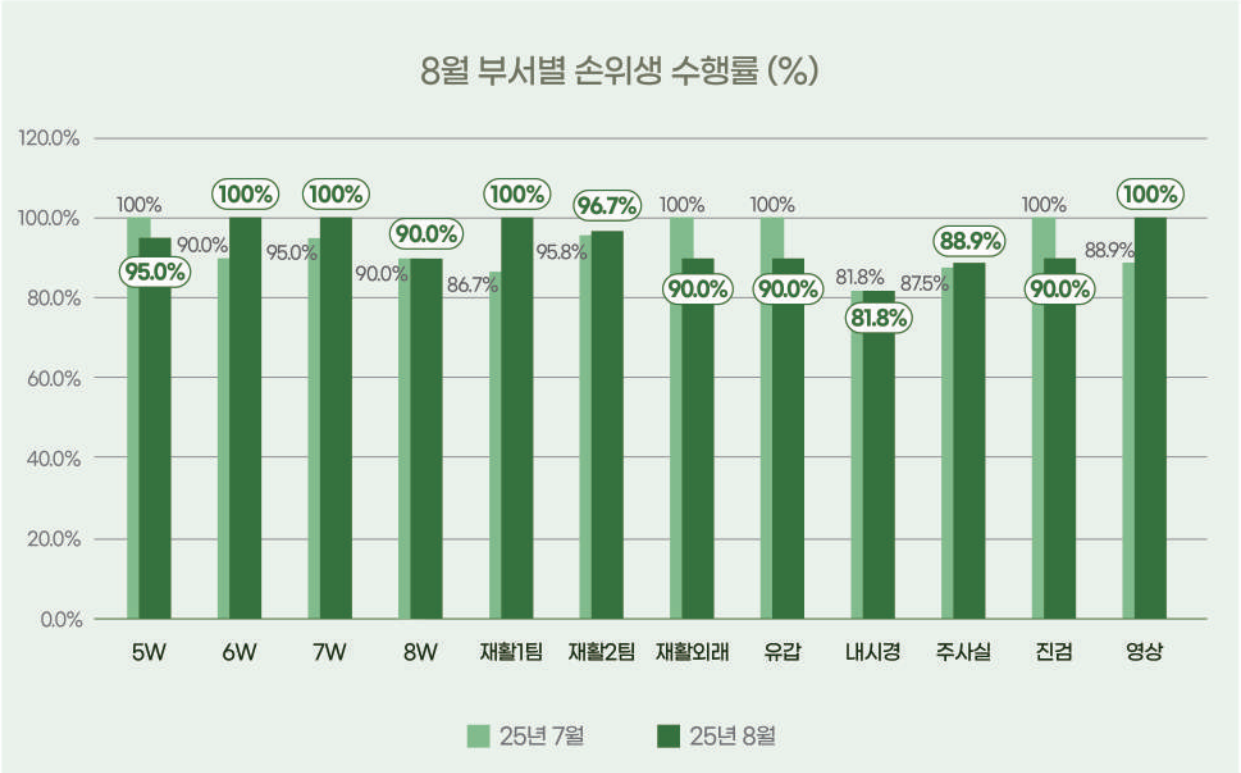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5년 08월 01일 ~ 2025년 08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5년 7월 결과와 비교 분석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83	173	94.5%	+ 3.0%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직장 복귀를 목표로 사회복귀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0대 초반의 김○○님은 경제학·무역 교수로 재직 중, 2024년 2월 뇌출혈 발병하여 재활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입원 초기에는 스스로 자세를 교정하지 못해 앉거나 일어나는 동작이 원활하지 않았고, 균형 유지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신체적 회복을 위한 시작점에서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실비 보험 보장으로 치료비 부담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배우자는 전업주부이고 딸은 취업을 준비 중이라 가계에 안정적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님은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컸고 직업 복귀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3개월 간의 병가를 내고 재활치료에 전념하며 빠른 퇴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복직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불안감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완화해 나가실 수 있도록 수시 상담을 통해 복직을 위한 환경을 점검해 나갔습니다.먼저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재활코치팀의 밖으로 한걸음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강의 활동 시 이동 편의를 위한 전동휠체어를 직접 조작해 보기도 하고, 집에서 강의 준비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높낮이 조절 책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준비 품목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혜임당 주거환경개선 사업 신청을 지원하였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전 회의와 주거환경 평가를 통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였습니다. 자택 내 휠체어 이동 상황을 고려하여 현관 경사로와 화장실 내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였고, 퇴원 전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준비를 통해 김○○님은 9월에 반드시 복직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김○○님은 상지 근력이 회복되어 팔의 움직임은 가능하나 조절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하지 근력은 여전히 저하되어 있어 지팡이를 사용한 보행은 가능하지만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출퇴근 시 전동휠체어로 이동해야하며 복직 초기 적응을 돕고자 배우자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돌봄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근무시간 동안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부산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를 안내하였고, 이를 통해 배우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복직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우선 평생교육 과정을 통해 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이후 대학생 강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님의 복직은 단순한 경제적 필요가 아닌 사회적 역할 회복과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랜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강단에 서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9월 계획대로 복귀하여 직업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시길 기대합니다. 퇴원 이후에도 김○○님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참여자 주요 사항

<table>
<tr><td rowspan="6">참여자 사항</td><td>대상</td><td colspan="6"><table><tr><th>성별</th><th>나이</th><th>보호유형</th><th>대상질환</th><th>발병일</th><th>입원기간</th></tr><tr><td>남</td><td>56</td><td>건강보험</td><td>뇌출혈</td><td>2024.02.</td><td>2024.04. ~ 입원중</td></tr></table></td></tr>
<tr><td>가족사항</td><td colspan="6">■ 가구형태 : 부부 자녀 가구
■ 주보호자 : 배우자
■ 외동 딸(취업준비생)</td></tr>
<tr><td>심리·사회적 사항</td><td colspan="6">■ 직업 및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음
■ 발병 후 3개월 병가</td></tr>
<tr><td>경제적 사항</td><td colspan="6">■ 실손보험 가입으로 치료비 부담은 크지 않으나 1년간 가계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장기적으로 경제적 부담 증가할수 있음</td></tr>
<tr><td>주거사항</td><td colspan="6">■ 주거형태 : 아파트
■ 주거환경 : E/V 있음, 안전바 미설치, 현관단차 있음</td></tr>
<tr><td>문제사항 및 욕구</td><td colspan="6">■ 직장 복귀 희망
■ 직장 복귀 시 배우자 돌봄 부담 증가
■ 가정 내에서도 낙상 위험이 높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필요</td></tr>
<tr><td rowspan="3">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td><td>사회복귀계획</td><td colspan="6">■ 퇴원경로 : 자택으로 퇴원
■ 치료계획 : 낮병동 또는 외래치료 고려
■ 9월 원 직장 복귀 계획</td></tr>
<tr><td>참여 프로그램</td><td colspan="6">■ 상담 : 참여자 및 보호자 수시 상담
■ 교육 : 슬기로운재활생활
■ 활동 : 밖으로 한걸음 PG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 정서지원 : 이벤트 PG, 그룹치료 PG</td></tr>
<tr><td>지역자원 안내 및 연계</td><td colspan="6">■ 혜임당 주거환경개선사업
■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근로지원인 제도)</td></tr>
</table>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함께 만드는 행복하모니 연주회 (08.26)

여름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온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여름의 끝자락에 4층 치료실에는 '행복하모니 연주회'를 위한 작은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정희자 강사님의 지도로 입원참여자, 보호자, 직원이 모여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손놀림과 호흡으로 이 작은 악기의 고른음을 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강사님의 따뜻하고 유쾌한 지도와 서로 간의 격려가 서툰 모습조차도 함박웃음을 짓게 하였습니다. 두 주에 한 번씩 모이는 짧은 연습시간이었지만 모일 때마다 모두의 하모니는 조금씩 자라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행복하모니 연주회'가 열리는 날. 긴장과 설렘 속에서 준비한 곡들을 다시 맞춰보는 시간을 가진 후 초대에 응해주신 입원참여자와 가족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모두의 하모니가 연주되었습니다. 음악회에 함께한 모두를 가장 행복한 곳으로 싣고 날아갈 '비행기'로 시작해 '등대지기'까지 손뼉 치며 노래하며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 되어 서로에게 따뜻한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준비한 모든 곡의 연주를 마치고 한 분씩 이번 연주회에 참여한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차오르는 감동과 소회를 전할 때 우리 모두는 함께함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공감하였습니다.

숨은 생명입니다. 한 호흡 한 호흡을 모아서 숨을 몰아 쉴 때 하모니카는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하모니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안겨준 시간 이였습니다. 여름을 보내며 다가오는 가을에 다시 이 감동의 연주회를 기다려 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08월의 신규입사자



재활간호팀(8W) 이채원 간호사



브랜딩실 박주영 팀원



시설팀 김승욱 팀장



재활간호팀(8W) 서범석 간호사



갑상선유방팀 정다미 간호사



재무팀 이현승 파트장

8월

- 나태주 -

태양으로부터
무차별 쏟아지는
열정의 포화, 프로포즈

이 뜨거움 없으면
어찌 여름이
여름일 수 있겠니?

나무나 곡식이며 풀들은
어찌 일 년을 견딜 것이며
사람 또한 그러하겠니?

피서 혹서다
그럴 여유도 없다
태양의 선물이 고마운 것이다.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이미용 서비스

(08.19 / 08.22)

이 작은 나눔이 생활동 곳곳에
희망의 온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매월 이미용 자원봉사자분들이 병원을 찾아와 참여자분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병실 안의 생활은 때때로 단조롭고 지루할 수 있지만, 정성껏 머리를 다듬고 나면 환한 미소와 함께 마음까지 환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번 달에도 4명의 자원봉사자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셨고, 그 따뜻한 손길 덕분에 78명의 참여자분들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의 나눔을 넘어, 참여자 한 분 한 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능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자 따뜻한 연대의 표현입니다. 매달 잊지 않고 병원을 찾아와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자원봉사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해나행 TV
뇌경색 재활의 기록, 병실에서 무대로 (08.22)

긴 회복의 시간을 갖고,
무대 위에서 다시 노래하게 된
류성태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재활을 통해 되찾은 용기와 희망,
그리고 음악으로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참여자와 가족, 그리고 치료진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청과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영상시청이 가능합니다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나행밥상 스물한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21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순대국밥







“드시고 싶은 음식 없으세요?”
“순대 국밥요. 웬만한 국밥집보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더우니 여름 지나고 시원해지면 해 주세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더위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화 끝에 이번 달 요청 메뉴로
순대 국밥이 정해졌습니다.

직장인의 소울 푸드이자,
애주가들의 영혼의 단짝인 순대 국밥.
일제강점기에 나온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는
내장만 들어갈 뿐 순대는 안 들어갔고,
비슷한 시기에 나온 ≪우리음식≫에는
또 순대가 들어간 순댓국이 나와 있는걸 보면,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온
순대 국밥의 다양한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형태 중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순대가 들어간 순대 국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돼지뼈를 48시간 동안 푹 끓인 국물에,
보들보들한 순대와 적당한 지방으로 이루어진 살코기,
잡내 싹 제거된 부산물을 한 그릇에 제공하면
누구나 상상하는 그 맛과 향, 모양의 순대 국밥이
완성됩니다.
뜨끈하게 한 그릇하면 이열치열(以熱治熱),
더위를 저 멀리 보낼 수 있겠죠?

얼마 남지 않는 더위를
영양팀과 함께 슬기롭게 지나가기를 바래봅니다.

언제나 영양팀은
한 끼의 식사에도 설렘을 느끼고
추억을 떠 올릴 수 있도록
손끝으로 추억의 그 날을, 그 맛을
식탁 위에 펼쳐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추억을 요청해 주세요.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8.14)

내가 담은 음식은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

더위를 피하는 방법
<동요>

더워라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정말 덥구나
소나기야 쫙쫙 내려
더위 좀 식혀라
뭉게구름아 어서 나와
햇님 좀 가려라
솔솔 바람아 거들어라

일 가신 울 아빠 힘드실텐데
햇님아 조금만 쉬지 그러니
일 가신 울 엄마 힘드실텐데
저 햇님은 쉬지도 않네



이 동요처럼 뭉게구름과 솔솔바람이
제 역할을 빡세게 해 주기를 바라며ㅎㅎ,
그래서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힘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막바지 더위를 향해가고 있는 오늘,
소소하게 잔반이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내가 담은 음식은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한 숟갈 더 먹는다고 배가 터지지는 않는다는
인체의 신비를 믿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동료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양팀은 상~큼한 젤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더위도, 잔반도 모두 zero가 되길 바라며...
아자아자 화이팅!

홍보팀장의 '브런치' 마흔 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40

매일 글쓰기는 177일로 끝이났지만,

나의 관찰도, 나의 성취도, 나의 실패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올해 초, 나는 '연말과 새해에 읽은 두 권의 책이 바꾼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일상의 풍경을 사진 한 장과 짧은 글로 기록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목표는 거창했다. 바로 365일 매일 쓰기.

결과는? 실패다.

1월 1일부터 시작해 6월 26일을 끝으로 멈췄다. 정확히는 177일간 매일 쓴 셈이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썼고, 명절에도 제사에도 썼다. 1박 2일 여행은 물론 4박 5일 해외여행에서도 빼먹지 않았다. 아파도 썼고, 술 먹고도 썼다. 새벽에도, 밤 12시가 다 되어 가서도 썼다. 지독하게도 썼다. 그런데도 실패라니. 사실 1년을 채우면 그 글들을 묶어 책으로 내지 않을까 하는 달콤한 상상도 했는데, 그 꿈은 결국 아이들의 비눗방울처럼 톡— 하고 사라졌다.

6월 즈음, 번아웃이 찾아왔다. 갑자기 삶의 무게가 확 느껴졌다. 대학 졸업 후 곧장 취업해 쉼 없이 달려왔던 직장생활. 중간 중간 이직의 간격에서 잠시 숨 돌릴 틈은 있었지만, 결혼 이후에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 평생 이렇게 일만 해야 하나 싶어 '일 년만, 아니 한 달만이라도 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물론 무급 휴직은 제도적으로 가능했지만, 가장으로서 그럴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다. 괜히 아내에게 "나 한 달만 쉬고 올까?" 농담처럼 흘려봤지만, 대답은 안 들어봐도 뻔했다. 결국 밀어붙이지 못한 내 마음은 다른 곳에서 길을 찾았다. 병원에도 '교수의 안식년' 같은 제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 바로 그 상상이 내 글쓰기를 멈추게 한 셈이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다. 휴대폰 속에는 더 이상 일상의 흔적이 쌓이지 않았다. 계절에 맞는 단어도 떠오르지 않았다. 눈도 손도 머리도 편해졌지만, 마음 한쪽에는 완주하지 못한 아쉬움이 늘 자리했다. '그때는 상황이 그랬으니까'라며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안다. 그건 뇌가 자동으로 보내는 위로 메시지일 뿐이라는 걸.

"그런데 자꾸 왜 난 또 가사를 끄적이는 걸까."

그러다 문득 2021년 <쇼미더머니 10>에서 베이식이 부른 가사 한 줄이 떠올랐다. 가수를 그만두고 취업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사를 끄적이던 자기 이야기를 담은 가사였다. 나 역시 글을 무척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 쓰는 편도 아닌데 자꾸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177일간 매일 쓰던 후유증일까. 지나가는 일상, 바뀌는 계절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괜히 아쉬워졌다. 심지어 내 문장에 라임이 맞춰지는 순간이 있었다. '나도 래퍼인가?' 싶어 혼자 피식 웃었던 기억도 난다.

> 개인의 회복력, 즉, 실패를 다루는 힘을 얻는 것이다.
> _김수현《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다산북스)

생각해보면, 글쓰기는 단순히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자체가 주는 묘한 힘이 있었다. 아이들 눈에는 늦은 밤 노트북 켜놓고 사전까지 뒤적이며 글 쓰는 아빠의 모습이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어쩌면 "어른도 공부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선물했을지도 모른다. 글을 마치고 나서야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그 후련함, 묘하게 개운한 마음은 지금도 조금 그립다.

돌이켜보면, 177일간 매일 글을 썼다는 건 결코 가벼운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다루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넘어지는 순간보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다. 도전한 사람만이 실패를 맛볼 수 있고, 그래서 실패는 곧 값진 경험이 된다.

> 나의 관찰도, 나의 성취도, 나의 실패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 _정철《인생을 건너는 한 문장》(김영사)

절기는 벌써 입추와 처서를 지나갔는데, 여전히 폭염은 기세를 꺾지 않는다. 글쓰기에 나의 여름은 잠시 멈췄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다. 관찰도, 성취도, 실패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또 다른 계절에, 또 다른 나로, 새로운 글쓰기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른다.

실패란,
실행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매일 쓰던 글 멈추기 하루 전 날에 쓴 글,
그 당시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회색의 빛살 아래 침묵한 노고
모니터 뒤편에 쌓여간 노안
서류 속 발버둥 짧은 노력
귀를 적시는 라디오 속 노래
버티는 법 익숙해진 노련
지하철 손잡이 아래 퍼지는 노곤
붉은 불빛 살결을 스친 노출
하늘 끝 번져든 위로 같은 노을

2025.06.25

회색 빛이 가득한 사무실 안, 말없이 쌓여가는 업무에 **노고**하며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버텼다. 눈은 점점 침침해지고 작은 글씨 하나에도 한참을 들여다보게 되는 요즘, 어느새 찾아온 **노안**이 실감났다. 반복되는 보고서와 이메일 사이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나를 믿는다는 마음 하나로 계속해서 **노력**을 이어갔다. 퇴근길, 이어폰을 꽂자 익숙한 라디오 멜로디가 귓가를 적셨다. 무심코 흘러나온 그 **노래**는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는 작고 조용한 위로였다.

회사라는 전장에서 버티는 법을 배워야 했고, 이제는 웬만한 일엔 흔들리지 않을 만큼 **노련**해졌다. 하지만 정작 몸은 점점 지쳐갔다. 흐트러진 자세로 손잡이를 붙든 내 어깨 위에는 묵직한 **노곤**함이 내려앉았다. 집에 도착할 때 쯤 붉게 물든 하늘이 얼굴을 감쌌고, 하루의 피로마저도 드러나는 듯한 **노출**의 느낌이 들었다. 그때, 저 멀리 하늘 끝에 붉게 번지는 노을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 말 없이도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같은 그 **노을** 앞에서,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낸 나 자신이 조금은 대견했다.

수고했어. 오늘도.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제39호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5년 08월 29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